‘맛의 고장’ 장성군,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총력전

요리교실 열고 사찰음식 배우고…남도음식 진흥교육·토크쇼
역량 강화·기반 조성 주력…향토음식 ‘맛의 방주’ 등재도 추진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관 스님이 장성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대한민국 밥상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발굴·보존·연구·개발하는 국가기관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 최북단에 위치한 장성군은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남의 관문에 위치한다. 호남고속도로를 품은 데다 KTX까지 경유해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꼽힌다.

장성군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의 일환으로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엔 향토음식에 관심 있는 청년·학생·농업인 등이 참여한 남도·향토음식 진흥교육 8주 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향토음식 요리교실을 열었고, 백양사 천진암에선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관 스님으로부터 사찰음식을 배웠다.

지난 5일에는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과 ‘맛의 방주’ 등재를 위한 향토음식 발굴 간담회도 가졌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향토음식과 토종 종자를 ‘맛의 방주’에 등재해 소멸을 막고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5월 열린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에선 ‘남도음식영화토크쇼’를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대외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요리 전문학교 르꼬르동블루의 에릭 브리파 본교 학과장, 관계자들과 유럽연합대사단이 사찰음식 체험을 위해 백양사를 찾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장성군과 동신대학교가 업무협약을 통해 미식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씨제이(CJ)푸드빌과는 장성 농특산물로 신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마을 조리장 발굴’도 추진된다. 집장, 감단자 등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고유의 조리법을 지닌 주민을 마을 조리장으로 임명해 향토음식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음식, 케이(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장성군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체계적인 준비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수국 활짝 핀 강진의 여름 속으로’…수국길 축제

전국 생산 면적 33% 1위
30일부터 3일간 다양한 행사

본격적인 여름꽃의 향연이 시작되는 6월 강진에서 대규모 수국 축제가 열린다.

강진군은 2023 강진 수국길 축제가 ‘물, 숲 강진의 여름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은산 V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현재 강진은 농가 20개소가 5만8251㎡ 규모로 수국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 면적의 32.7%에 달한다.

전남도 내에서도 전체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조경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수국의 상당수가 강진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진산 절화용 수국은 품질이 우수해 지난 2011년부터 일본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일본 전체 수출량의 100%를 강진이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싱가포르 시범 수출을 진행하면서 수출 누적 70만 본을 달성했다.

이번 수국길 축제 현장에서는 ‘전국 제1의 화훼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는 각양각색의 수국을 만나볼 수 있다.

수국을 활용한 전시, 체험행사부터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물놀이까지 다채로운 콘텐츠가 초여름 축제를 장식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용 사진대회부터 숲속 음악회, 버스킹, 다양한 색감의 수국들로 구성된 감성 포토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있다.

축제장에서는 ‘리마인드 웨딩’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미리 구비된 신랑·신부 드레스와 수국 부케를 활용해 연애 시절의 풋풋함과 결혼 당시의 설레임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보은산에 빼곡히 들어선 나무들과 햇살 아래 밝게 빛나는 수국을 배경으로 더 특별한 웨딩 촬영이 가능하고, 액자는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압화 부채부터 수국 리스(화관), 압화 그립톡, 수국 화분까지 다양한 수국 관련 굿즈를 만들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장 내 저수지에는 짜릿한 여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20여 대 가량의 수상 자전거를 비치할 계획이며, 여름 대표 수생식물 연꽃단지도 선보인다.

또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할 것을 고려 V랜드 물놀이장을 축제 기간에 맞춰 한시 개장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존재 자체가 킬러 콘텐츠인 강진 수국을 활용해 다른 곳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면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고장’ 강진에 오셔서 여름철 무더위를 마음껏 날려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 체납차량 주말·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9월까지 특별정리기간 강력 대처

담양군이 오는 9월30일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은 최근 재무과장 주재로 읍면 세무·민원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지자체의 중요 수입원인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주민세·재산세 소액 체납분 역시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담양군은 체납 정리목표액 12억7000만원의 초과달성을 위해 읍면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인력을 지정해 실효성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와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집중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마련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할 기회를 주는 한편 고의적 상습 고액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모내기를 한 논에서 벼물바구미 해충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화순군 모내기 이후 벼물바구미 피해 주의보

화순군이 모내기가 한창인 시기를 맞아 해충 ‘벼물바구미’ 피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온성 벼 해충인 벼물바구미는 모내기 이후에 발생한다.

월동한 벼물바구미는 논으로 옮겨가 잎을 갉아먹는다.

유충은 뿌리를 갉아 먹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

해충 발생 초기에는 논둑에 인접한 벼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논 중심부로 이동하며 피해를 확산시킨다.

증상으로는 벼 잎에 세로로 흰색 흔적이 생긴다. 모내기하고 10~15일 뒤에 방제해 해충 밀도를 초기에 줄여놔야 한다.

화순군은 벼 일반 재배지를 대상으로 3억3000만원을 들여 육묘 상자 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재배 논에서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벼 농업인들이 예찰·방제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흥군, ‘친환경 무산김’ 종자 주권 확보 나섰다

7년 육종 품종 보호등록 마쳐
김 종자 경쟁 우위 선점 기대
대외 인지도 높이기도 박차

장흥군이 친환경 ‘무산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2008년부터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전통 김 양식방법으로, 전국 최초의 친환경 김 브랜드인 ‘장흥 무산김’을 탄생시켰다.

장흥군은 친환경 무산김 양식 방법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코자 2009년 장흥 해역에서 무산김 양식에 적합한 종자를 선발해 7년의 육종 과정을 거쳐 최종 3개 품종을 2016년‘품종보호등록’출원을 신청했다.

이후 3년 동안 까다로운 품종심사를 거쳐 2020년(흥초3호), 2021년(흥초2호) 각 2종의 품종 등록이 완료됐다. 현재 ‘흥초1호’는 마지막 재배심사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품종보호등록은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라서 진행되며,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등록이 완료된 품종은 해당 기관에서 20년 동안 권리를 갖게 된다.

품종보호 등록으로 장흥군은 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육종 원천 소재 확보뿐만 아니라, 김 종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2018년 해수부 공모사업인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2021년 배양실, 연구실을 갖추고 문을 연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은 흥초 종자를 비롯한 우량종자 보전·배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친환경적인 무산김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응하는 우량 김 종자 연구가 필요하다”며 “품종보호 등록을 통해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장흥 무산김’의 대외적 인지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멸종위기 식물 풍란 4000여점 만난다

함평군 15~8월31일 전시회

멸종위기 식물인 ‘풍란’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함평군에 마련된다.

함평군은 2023년 풍란 전시회가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풍란전시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의 멸종위기 식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식물인 풍란의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회에는 수려한 색상과 기품있는 향기를 가진 나도풍란과 풍란 등 40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나도풍란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난초로, 전남 도서 지역과 제주도에서 자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발견되지 않으며 관상가치가 매우 높다.

풍란은 아시아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착생란으로 전남과 경남 해안지역, 제주도 등지에서 주로 자생하며, 향이 매우 진해 원예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멸종위기 생물 보존을 위한 제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전국대회는 오는 9월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한다.

멸종위기 식물인 나도풍란.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멸종위기 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 당부

“피부 상처 바닷물 접촉 피해야”

강진군이 13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해 감염될 수 있다.

해수온도가 18도 이상 높아지는 시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세균증식이 활발해져 오염된 물과 어패류 섭취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하지 않기 ▲어패류 구입 후 신선하게 보관하기 ▲조리시 충분히 세척하기 ▲85도, 3분 이상 가열해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강진군보건소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면 등 7곳의 바닷물과 갯벌 등을 채취해 균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7~8월에는 마량 일원 횟집을 중점적으로 수족관 수를 채수해 균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를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